코로나 확산에 우크라 사태…지역경기 전망 먹구름

광주·전남 4월·2분기 경기전망조사 기준치 크게 밑돌아
제조업, 국제유가·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경기불안 심리 확산
식음료·전자, 사적모임 완화·간편식 구매 증가로 호전 기대

오미크론 대확산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자재 공급불안이 겹치면서 지역 제조업의 체감경기는 더 얼어붙고 있다.

지난 3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2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4월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90.9로 나타나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2.5)에 비해서는 1.6포인트 더 하락한 것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89.3, 전남은 93.0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94.1로 전월(97.5) 대비 3.4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88.1로 전월(84.5) 대비 3.6포인트 올랐다.

제조업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정점 지연가능성이 대두되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경기불안 심리가 확산하며 경기전망지수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지역 제조업계의 우려는 광주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기업경기전망지수 자료를 봐도 나타난다.

광주상의가 최근 광주지역 12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9로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면서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데다 러-우크라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불안 등이 겹쳐 상품가격 불안전성이 확대되고,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광주상의는 분석했다.

지난 1분기 실적 역시 79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오미크론의 지역감염 증가와 내수 및 수출입 부진 등 악재가 겹친 게 원인으로 꼽힌다.

2분기 업종별 전망은 '식음료'(114), '유리·비금속광물'(117), '기계·금형'(128), 'IT·전기·가전'(110) 업종은 호전될 것이라고 봤으나, '고무·화학'(82), '철강·금속가공'(75), '자동차·부품'(80) 업종 등은 우려가 컸다.

식음료 업종은 사적모임 완화 및 간편식 구매 증가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고, '유리·비금속광물'은 건설업 성수기 진입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IT·전기·전자' 업종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집콕' 트렌드가 이어지고 맞춤형 신제품 출시 등으로 긍정적인 경기전망을 했다.

반면 '고무·화학·플라스틱', '철강·금속가공' 등은 발주물량 감소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자동차·부품'도 러-우크라 사태와 러시아 제재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 원자재가 상승, 반도체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분기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대내외리스크(복수응답)로는 '유가·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83.5%)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 여파 지속에 따른 내수 침체'(57.0%), '국내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40.5%), '글로벌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차질'(19.8%) 등 순이었다.

경제 현안 중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분야(복수응답)에 대해서는 57.9%가 '규제완화 등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제 및 주 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제도개선'(52.1%), '글로벌공급망 차질 해소 등 국제관계 대응'(35.5%) 등이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러-우크라 사태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 등으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선재적 대응과 내수확대와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투자·금융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기업 모집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일부터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410억원 예산을 투입해 1만 5000여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으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지가 높은 기업에 바우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부담율이 10%에서 30%로 상향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수요기업은 400만원 바우처 한도내에서 희망 서비스 분야와 공급기업을 선택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은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리신청·결제,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도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1일 오전 9시부터 이달 14일 오후 4시까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유모차·카시트 할인전 지난 31일 ㈜광주신세계 직원이 고급 유모차 브랜드 '부가부' 매장에서 대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1~3일 본관 1층 행사장에서 프리미엄 유모차 및 카시트 할인전과 교구 '키즈스콜레' 기획전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산 게임 신작 출시 한달만에 1만건 다운로드

'달님이 뷰티 놀이' 캐쥬얼 장르 2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한 광주기업 게임 신작이 출시 한 달 만에 인기 순위에 올랐다.

진흥원은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온닷'의 신작 '달님이 뷰티 놀이'가 지난 11일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캐쥬얼 장르 순위 2위, 전체 인기 순위 26위를 달성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게임은 출시 한 달 만에 '구글플레이'에서 1만건 내려 받아지기도 했다.

'온닷'은 지난 2020년 광주글로벌게임센터에 입주했으며, 다양한 게임을 출시하며 판로를 다각화하고 있다.

글로벌게임센터는 일반형 및 실감형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때 지역 지적재산권(IP) 사용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탁용석 진흥원장은 "지역 애니메이션 IP를 활용해 기업 간 시너지를 통해 광주 콘텐츠 산업이 확장되고 동반 성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KIA 우승기원' 예·적금 출시

성적 따라 예·적금 금리 우대

광주은행이 2022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올해도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내놓았다.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5번째 선보이는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은 매년 인기를 더하고 있다.

이 상품은 오는 7월31일까지 판매한다.

송종욱 은행장은 지난 31일 '1호 가입자'로 나서며 KIA타이거즈의 승리와 우승을 기원했다.

이 예·적금 상품은 KIA타이거즈 성적에 따라 예금은 최고 0.25%포인트, 적금은 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금 금리는 연 최고 2.15%, 적금은 3.0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KIA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거나 정규시즌에서 우승 또는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면 0.05%포인트~0.1%포인트 금리를 더 주는 방식이다.

적금의 경우 지난 시즌 가입 고객이 또 가입하거나 상품서비스 안내에 동의하면 각 0.1%포인트를 더 준다.

정규시즌에서 최장 연승 기록을 하면 최고 0.5%포인트를 제공한다.

▲팀홈런 130개 이상 달성 때 0.1%포인트 ▲팀세이브 35개 이상 달성 때 0.1%포인트 ▲팀타율 2할8푼 이상 달성 때 0.1%포인트 등 경기 기록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예금은 50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1인 1계좌 가입할 수 있으며, 적금은 월 1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정액적립식으로 가입 가능하다.

지난 시즌 예·적금 만기 고객이 재가입하거나 올해 예금·적금 모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치킨, 커피 상품권을 증정한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KIA 성적이 다소 좋지 않았음에도 예금은 3795좌(947억원), 적금은 8019좌(178억원)를 판매했다.

송 은행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지역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31일 송종욱(왼쪽 두 번째) 광주은행장이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2022 시즌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1호 가입자로 나서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금호타이어-KIA
4년만에 스폰서십 체결
내일 개막전 참관 행사

금호타이어가 4년 만에 KIA타이거즈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프로야구 마케팅에 나선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2일 올 시즌 공식 후원에 따른 KIA타이거즈 개막전 참관 행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임직원이 참석한다.

KIA타이거즈 선수들은 스폰서십 체결에 따라 올해 정규시즌 모든 경기에서 상의 우측 흉장에 금호타이어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게 된다.

또 홈 경기와 원정경기 등 총 144경기를 비롯해 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입장권, 팬북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프로야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관중 입장 제한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정규시즌부터 100% 관중 입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프로야구 인기가 다시 회복할 것으로 금호타이어는 전망했다.

이강승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4년만에 금호타이어가 기아 타이거즈와 스폰서십을 체결하면서 올해 우승 기원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며 "유니폼은 중계 방송시 선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금호타이어도 야구 팬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미크론 대유행에
2월 광주 광공업생산지수
감소세로 돌아서

오미크론 대유행에 2월 광주 광공업생산지수가 전년보다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보다 광공업생산이 줄어든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과 경북, 광주 3곳 뿐이다.

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광공업생산액을 기반으로 작성한 생산지수는 전년 같은 달 보다 광주는 0.7% 감소하고 전남은 5.5% 증가했다.

전국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보다 6.5% 증가했으며, 광주를 포함한 3개 지역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1월 광주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보다 8.8% 증가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하루 수천명 넘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월 들어 반락했다.

광주의 2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보다 2.3%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자동차 산업 지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보다 13.3%나 감소했다.

광주 자동차 생산지수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도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 2월 들어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외 광주지역 담배(-40.5%)와 기계장비(-6.0%) 생산지수는 줄고 고무 및 플라스틱(20.1%), 음료(113.8%) 등은 증가했다.

전남 제조업 지수는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타운송장비 생산지수가 전년보다 65.6% 급증했고, 1차금속(7.0%), 화학제품(2.3%)도 늘었다. 기계장비(-33.1%), 고무 및 플라스틱(-10.3%), 의약품(-65.8%)는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57.65 (+10.91)
↑	코스닥	944.53 (+5.46)
↑	금리 (국고채 3년)	2.663 (+0.048)
↑	환율 (USD)	1212.10 (+2.50)